

### 룻기 3장 8-15절 말씀

#### **첫번째 대화**

0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 
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

09 이르되  
네가 누구뇨?

대답하되  
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 
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 
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

#### **두번째 대화**

10 이르되  
내 딸아  
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 
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 
너의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

11 내 딸아  
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 
네가 현숙한 여자인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

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 자나  
무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

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 
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 
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 
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 
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 
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 
아침까지 누울찌니라

14 ○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 
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 
보아스의 말에  
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

#### **세번째 대화**

15 보아스가 이르되  
네 겹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 
펴서 잡으니  
보리를 여섯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